

다원주의의 어떻게 볼 것인가?

강영안

서강대 철학과 교수, 서강대 IVF 지도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실행위원, 본회 연구위원

1. 상대주의와 그 유형들

우리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상대주의란 간단히 이야기해서 어떠한 주장이나 이론이 그 자체로 보편타당성이 지닌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어떤 지역 또는 어떤 시간, 어떤 인물)에 대해서 상대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보편 타당하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상대적'이라는 말은 예컨대 어떤 주장이나 규범, 또는 어떤 이론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은 없고 단지 어떤 시간이나 지역, 어떤 대상에 따라, 그와 '관계해서' 적용되거나 통용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이론이나 주장, 어떤 규범이나 규칙이 상대적이라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장이나 신념을 일컬어 '상대주의'라고 부른다.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상대주의는 어떠한 보편적인 진

2 다원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리, 절대적인 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과학적 주장이 시대나 지역, 인물과 관계해서만이 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인식론적 상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도덕 규범과 관련해서 도덕 규범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그와 관련해서 타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일컬어 우리는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에스키모인들에게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습을 다른 곳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만일 윤리란 것이 어떤 풍습이나 관습의 총체라면 윤리란 당연히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미적 또는 감성적 상대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취향과 관련된 문제로서 인식론적 상대주의나 윤리적 상대주의보다 오늘날 훨씬 더 퍼져 있는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취향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취향의 문제는 과거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답다' 또는 '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도덕적 문제도 취향의 문제가 되고 있다.

옛부터 내려온 말 가운데 "취향에 대해서는 논란하지 말라"(De gustibus non disputandum est)는 말이 있다. 어떤 취향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나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지 왜 어떤 특정한 것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가 쓴 『판단력비판』은 바로 이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저 꽃이 아름답다"고 어떤 이가 얘기했다고 하자. '아름답다'는 것은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정과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어떻게 "저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미적인 판단이 단지 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판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선 우리는 저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타인에게 말로써 전달할 수 있고 타인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다시 칸트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이른바 '공통감각' 또는 '공통적 지각'(common sense)이 있다. 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내린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공통감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통감각'이란 누구나 갖춘 감각 또는

지각 능력이라는 데 그치지 않고, 한나 아렌트의 해석에 따르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의식'이다. 오늘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파편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름답다, 추하다, 또는 나아가서 어떤 것이 옳다, 틀렸다 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공통적인 지각 능력에 호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상대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윤리

만일 이러한 상황을 전제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상대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외에 어떤 절대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상대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도덕 규범에 관해 생각해보자. 예컨대 십계명은 오늘날 절대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신학자는 십계명은 그 당시의 윤리적 코드이지 오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그렇다면 십계명이 가진 규범적 성격이 무엇인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 보면 도대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규범적 성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을 어떤 지역이나 시대를 초월한, 다시 말해 상황 독립적인, 또한 행위자 독립적인 규범으로 보아야 하는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십계명이라는 계명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다. 만일 십계명이 절대적 타당성을 갖는다면 그 절대적 타당성은 십계명 자체보다는 그것을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성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계명 자체가 절대적이기에 지키기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윤리가 갖는 특성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윤리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따른다든지 사람이 마땅히 행해

1) 이것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영만,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책임",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임성빈역음)(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11-31면 가운데 13-16면 참조.

4 다원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야 할 바를 행한다든지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 리처드 마우가 표현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윤리'(Divine Command Ethics)라고 할 수 있다.²⁾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명령의 윤리는 무엇보다도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다. 인격적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서술될 수 있겠지만 의사소통 가능성이 그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말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한탄과 탄식이 가능하다. 둘째, 명령의 윤리에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선행해 있다. 십계명을 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앞서고 그에 따른 명령(규범)이 뒤따른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삶의 규범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 해방 사건이 앞서고 그를 뒤이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규범 자체보다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삶의 상황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규범은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행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차적이고 규범은 이차적이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규범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란 육신으로는 생명이 없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생명의 존재로 옮겨짐으로써 형성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께 합당하게'(골 1: 20), '복음에 합당하게'(빌 1: 27), '부르심에 합당하게'(엡 4: 2) 살아야 한다. '합당하게'란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axios), 즉 그 격에 어울리게, 그런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값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규범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주의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나 관계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2) Richard J. Mouw, *The God Who Commands: A Study in Divine Command Ethics* (Notre Dame, Indiana: Notre Dame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3. 다원적 삶의 상황과 다원주의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삶의 방식이 통용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나는 유럽에 다시 살면서, 다른 것들은 유학 시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성이나 결혼과 관련된 문제는 그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화란의 경우 동성연애자가 서로 결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를 입양할 권리조차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산다면, 아이는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것이고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로서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적 가족 형성 방식,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한 가지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허용되고 있다. 벨기에에 머물고 있을 동안 재무장관과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분의 미성년자와의 동성에 행위가 문제된 적이 있었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그는 미성년자와의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며 자신의 동성애적 행위는 업무 수행과 전혀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유럽에서는 이제 동성애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러한 상황을 다원적 또는 다원주의적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지적해 두자. 다원주의가 무엇인가? 예컨대 윤리나 사상,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오직 '하나'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상을 일컬어 '일원론(monism)'이라 부르고 '둘'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원론(dualism)'이라 부른다. '다원론' 또는 '다원주의(pluralism)'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나 '둘'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말이다. 다원주의는 분야에 따라서 인식론적 다원주의, 윤리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문화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 정치 다원주의 등 여러 형태를 띠 수 있다. 구원의 길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일컬어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참된 지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인식론적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매우 형식적이긴 하지만 다원주의는 어떤 형태를 가지는 상관없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

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리처드 마우(Richard Mouw)와 흐리피운(Sander Griffioen)에 따르면 다원주의는 서술적인(descriptive) 측면과 규범적인(prescriptive) 측면을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³⁾ 서술적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적인 삶의 상황에서 어떤 다원주의가 통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옳다 또는 틀렸다, 바람직하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 등 가치 평가를 개입시키지 않고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단지 상황을 서술하는 차원에서 다원주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다른 가치관의 체계가 있다고 하자. 앞서 얘기한 대로 에스 키모인들이 손님을 접대할 때 자기 아내와 잠을 자게 해준다는 것은, 예컨대 유교적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하고 비난받을 일일 것이다. 하지만 관습과 제도는 문화에 따라 분명히 다르다. 일부일처제가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일부다처제가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가치 체계,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사회 구성 방식들이 있다는 것을,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서, 단지 서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원주의를 규범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 예컨대 종교는 현실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다. 서술적 측면에서 보자면 종교가 여럿이 있다는 사실을 서술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규범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다,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규범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또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당위적인 명제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여러 종교가 있다. 여러 종교는 각각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느 한 종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거나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서술적 명제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단순히 그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는 가치 평가가 이러한 서술에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을 일컬어 우리는 규범적 의미에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서술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은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지만 다원주의를 논할 때 꼭 유의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3) Richard J. Mouw & Sander Griffioen, *Pluralism and Horizons: An Essay in Christian Public Philosoph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3), 13-15면 참조.

마우와 흐리피운은 다원주의를 내용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한다.⁴⁾ 가령 종교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 나아가 세계관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능한 다원주의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다원주의는 삶의 지향, 삶의 방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다원주의를 마우와 흐리피운은 지향적 다원주의(directional pluralism)라고 부른다.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 하나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답이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이것을 일컬어 지향적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서술적 의미로 보는 것과 규범적 의미에서 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제도와 관습, 사회 구성 방식, 정치 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다원주의를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마우와 흐리피운은 '결합적 다원주의'(associational pluralism)라고 부른다. 예컨대 가정은 성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외에도 결혼이라는 형식 없이 동거가 가능하고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가정이 구성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단지 서술적으로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결합적 다원주의도 서술적인 의미로나 규범적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음식이나 주거 방식, 예술적 취향 등과 관련된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이다. 조리하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한국식, 중국식, 서양식 음식 등 나라와 지역에 따라 각각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 가지 조리 방식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피자도 먹고 자장면 맛도 보고 때로는 된장국을 즐길 수 있다. 주거 양식도 마찬가지로다.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주거 공간으로 삼을 수 있다. 문화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요컨대 다원주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여럿' 있고(서술적 의미의 다원론),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규범적 의미의 다원론)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말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다양하고 지역과

4) 같은 책, 15-17면 참조.

8 다원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사고, 다양한 방식의 제도, 다양한 방식의 문화적 양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원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원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양한 종과 다양한 특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획일적인 세계가 아니라 다양하고 다채로운 세계이다. 우리는 남아 공화국의 정치가 닉 디드리히의 “하나님은 획일성을 싫어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그러므로 흑인과 백인은 따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은 이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디드리히는 심지어 “하나님이 나누어 둔 것을 인간이 결코 결합할 수 없다”는 말로 흑백분리 정책을 정당화한다.⁵⁾ 그러나 다원성을 지지하는 것과 인종분리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다원성을 지지하는 사람은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종분리주의자들은 피부색의 차이를 바탕으로 차별을 주장한다.

4. 다원적 상황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되는 다원성, 예컨대 종교 다원주의를 규범적인 의미에서 주장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계 안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각 종교마다 세계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모종의 주장이 있을 뿐 아니라 구원과 자유에 대한 모종의 주장이 있다. 이것들을 단지 서술적으로 그리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범적 의미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어 왔다. 하나는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일컬어 흔히 ‘배타주의’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고 결국에는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본다. 이를 일컬어 ‘포괄주의’라고 부른다.

나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5)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Downers Grove, Illinois, 1992), 73면 참조.

의 해방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이며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랑하며 타인과 함께 살고 예배하는, 인간의 일상적 삶과 그 의미를 새롭게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컨대 유교와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와는 다르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다르다. 유교가 지향하는 구원은, 만일 구원이란 말을 붙인다면, '내성외왕(內聖外王)이다.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선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견성성불(見性成佛), 즉 부처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거나 전투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종교 다원적 상황을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고 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라고 할 때 '대답할 것'이란 말에서 '변증학'(Apologetics)란 말이 나왔다. 다른 신앙, 다른 종교, 다른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에게 소망의 로고스(logos), 즉 소망을 둔 '이유'와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되, 그것도 때로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원적 사회에서 다원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되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단지 느낌이나 감정, 삶의 모범으로서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 논증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베드로는 충고한다. 온유와 두려움, 즉 신사적이고 부드럽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다. 거룩함이란 무엇보다도 개인적 자질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화평함은 타인과 관련된 것이다. 타인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라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10 다원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자녀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녀야 할 속성이라면 화평함, 즉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바깥 사람들과 더불어 애써야 할 일일 것이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과 말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한 양심을 지니고, 언제나 화평함을 추구하는 태도로 대하라는 것이 다원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윤리적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